

PRINT INK

일본의 인쇄잉크 시장은 93년 10월까지의 계속해서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11월부터 회복세로 반전, 소폭이지만 착실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8월부터는 큰폭의 신장세를 보였고, 94년은 93년에비해 고무볼록판과 브리키판, 기타 각종 잉크의 회복이 현저했고, 평판잉크도 완만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전볼록판·그라비아·특수그라비아·신문의 각종 잉크 등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것은 평판잉크가 판매촉진용 인쇄물의 수요가 뒷받침되는 결과로 풀이되고 있고, 특히 반윤전잉크가 枚葉잉크를 제치고 큰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키판 잉크는 고온과 이상갈수에 따른 각종 음료, 맥주의 소비확대로 대폭 성장했다.

신문잉크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구성 자체는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옵셋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키레스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9월까지 일본의 최대 인쇄잉크기업의 하나인 東洋잉크製造 중간결산에 따르면, 경기회복세를 타고 인쇄잉크와 관련기재 등의 호조로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東洋잉크製造의 인쇄잉크와 관련사업의 매출액은 93년동기대비 0.7% 증가한 684억엔으로 집계되었다.

大日本잉크化學은 기록재료를 포함한 그래픽사업의 매출이 0.6% 증가한 778억엔, 사카타인스는 주력 부분인 잉크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인쇄제판기재사업의 매출액이 274억엔으로 1.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은 해외의 대형 인쇄잉크기업이 엔고와 일본시장의 혼전을 배경으로 저가격의 잉크를 대량 수입했으나, 성능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일본시장 잠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일본 시장에서는 제품 가격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결과도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기업의 잉크 출하액을 출하수량으로 나누고, 평균단가에 상당하는 가격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92년 이후는 약세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잉크를 제외한 94년 잉크가격은 91년대비 1 2%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잉크 출하현황

(단위 : M/T, %)

구 분	1992		1993		1994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평 판	106,128	▽3	109,707	3	81,774	3
윤 린 볼 록 판	14,699	▽4	15,287	4	11,217	0
고 무 볼 록 판	21,792	2	22,213	2	19,072	18
브 러 키 판	44,515	4	44,338	0	36,643	9
그 라 비 아	26,081	0	27,612	6	19,896	0
특수그라비아	117,723	0	117,859	0	89,576	1
기 타 잉 크	23,336	▽1	24,002	3	19,516	2
신 문 잉 크	46,276	▽1	42,612	▽8	31,949	1
보 조 제	4,825	3	4,727	▽2	3,767	11
합 계	405,375	▽1	408,357	1	313,410	4

주) 1994년은 1~9월까지의 합계

미국 수입비율 확대

93년부터 서서히 경기회복세를 보인 미국은 93년에 옴셋잉크가 큰폭으로 신장했고, 그라비아, 알키소 등의 각종 잉크가 92년 실적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잉크타입별 출하동향을 살펴보면, 당초 예상했던 2~3%의 신장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이포장 인쇄잉크 5%, 히트셋트·반윤전인쇄잉크 3%, 종이상업인쇄잉크 3%, 신문인쇄잉크 이외의 골드셋트·옴셋인쇄잉크 8%, 금속인쇄잉크 6%, 출판그라비아인쇄잉크 5%, 포장그라비아인쇄잉크 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볼록판잉크는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출판인쇄가 수위를 차지, 잉크 전체출하량의 약 40%를 점했고, 포장인쇄 30%, 상업인쇄 20%, 특수인쇄 10%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잉크업체는 아래의 10여개사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위별로 보면, Sun Chemical, Flint Ink Corp, INX International, BASF, Zeneca and The Ink Co, J.M. Huber, Superior, Seigwerk USA, Crown Zell-erbach(James River)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의 인쇄잉크산업은 성숙기를 맞아, 다수의 기업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매수·합작·합병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순위 5개사중 외국기업에 소유되지 않은 기업은 Flint Ink Corp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잉크 평균단가 추이(출하액 ÷ 출하수량) (단위 :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옴 셋	1.3	▽0.1	0.2	▽0.9	▽0.8
그라비아	2.6	0.4	▽2.5	0.6	▽1.5
플렉스	1.2	0.1	▽0.9	▽0.7	▽1.5
볼록판	▽3.7	▽3.4	▽0.9	2.2	▽2.1
기타	7.8	5.6	1.0	▽0.6	6.0

주)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유럽의 잉크출하량 추이 (국가별) (단위 : 1000달러, %)

구 분	1992		1993		전년대비
	수 량	구성비	수 량	구성비	
독 일	272	45	276	41	1.5
영 국	63	11	114	17	-
이 태 리	69	11	72	11	4.3
프 랑 스	69	11	70	10	1.4
네 덜 란 드	29	5	33	5	13.8
벨 기 에	28	5	30	5	7.1
스 페 인	23	4	22	3	▽4.3
스 위 스	18	3	19	3	5.6
스 웨 덴	13	2	13	2	0
오스트리아	12	2	14	2	16.7
노 르 웨 이	6	1	7	1	16.7
합 계	602	100	670	100	11.3

이러한 상황속에서 약 200여개의 기업이 500여개의 플랜트를 소유, 가동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2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기업들은 주력 공장과 주변에 200정도의 잉크조색·혼합기능을 가지고, 우세한 밀착형의 사업전개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국 판매망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지역적으로 극히 강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수송비용, 단기납기와 잉크의 특수성 성격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다수의 대형 기업들은 BASF를 제외하고는 인쇄잉크의 폴라인을 판매하고 있다.

중견규모의 인쇄잉크기업은 옴셋잉크내지는 그라비아·플렉스잉크로 특화하고 있고, 대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은 옴셋잉크와 특수잉크를 지역 한정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잉크의 수출입을 금액기준으로 계산한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약 20년전에는 1000만달러 수준으로 미국내 시장비율도 1~2% 정도에 그쳤으나, 92년은 수출입 모두 1억달러 수준까지 달성, 국내시장 비율도 4%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에 대한 수입의 비중도 서서히 확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 거래국은 일본·캐나다·독일·네덜란드·영국 등이며, 캐나다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일본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로 문제가 된 소비재와는 다르게, 인쇄잉크는 무역량이 적은 관계로 큰 말썽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쇄업계에서는 아직은 수입잉크의 비율이 미국 시장의 몇%에 불과하지만, 국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시장이 흐르면, 수입제품 문제가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NAPIM에서는 미국으로의 인쇄잉크의 수입관세가 1.8%임에 비해, EC에서는 6.6%, 일본으로 들어갈때는 4.6%와 소비세 3%를 징수하고 있어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국가별 지역별 수출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북아메리카 대륙은 77년부터 92년동안 15년간, 거의 전체의 50%를 차지,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동안에 유럽지역은 하락, 일본 이외의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잉크 출하량 추이

(단위 : 1000M/T,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수 량	구 성	수 량	구성비	전년대비	수 량	구성비	전년대비	수 량	구성비	전년대비
오프셋	371	43	369	43	▽0.5	399	45	8.1	422	46	5.8
그라비아	200	23	209	24	4.5	210	24	0.5	218	23	3.8
플렉스	171	20	178	21	4.1	178	20	0	183	20	2.8
볼록판	75	9	64	7	▽14.7	58	6	▽9.4	53	6	▽8.6
기타	41	5	46	5	12.2	49	5	6.5	50	5	2.0
합계	858	100	866	100	0.9	894	100	3.2	926	100	3.6

미주의 잉크 수출입 추이

(단위 : 1000달러, %)

구 분	1977	1982	1989	1992
수입액	9,072	20,131	63,439	102,006
수출액	18,148	31,515	49,142	127,020
수출에 대한 수입비율	50	64	129	80
국내시장 점유율(수입량)	1.0	1.4	2.8	3.5
국내시장 점유율(수출량)	2.0	2.1	2.1	4.4

미국의 잉크 수출입액현황 (국가별)

(단위 : 1000달러, %)

구 분	1977	1982	1987	1992	평균증가율
일본	541	2,221	12,719	42,313	34.0
캐나다	804	4,899	14,151	18,945	23.0
독일	1,405	2,848	12,728	17,968	18.5
네덜란드	2,912	6,276	10,526	9,803	8.4
영국	2,364	2,577	3,335	7,035	7.5
기타	1,046	1,310	9,979	5,942	12.3
수입액 합계	9,072	20,131	63,438	102,006	17.3
일본	1,058	1,702	3,112	9,155	15.5
캐나다	4,058	6,913	14,994	34,276	15.3
독일	858	910	1,193	6,695	14.7
네덜란드	521	835	2,312	3,139	12.7
영국	1,061	1,583	1,677	6,770	13.2
기타	10,597	19,572	25,854	66,935	31.1
수입액 합계	18,148	31,515	49,142	126,970	13.9

이것은 아시아지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맞물려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시장 약보합세, 독일 빠른 확대

오랜 불황속에서 허덕였던 유럽도 영국의 회복을 계기로 유럽지역 전역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 인쇄잉크의 출하동향을 살펴보면, 영국은 92-93년 모두 안정적으로 큰폭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네덜란드도 확실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

93년 가장 출하수량이 많은 독일은 92년대비 1.5% 소폭 증가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초에 발생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환경의 악화, 국내시장의 시장쟁탈전, 환경보호정책에 기준한 비용상승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유럽의 잉크업체는 Sun Chemical, Total, BASF의 3대기업을 중심으로 Huber · SICPA · Schmidt · Siegwark 등의 중견규모의 기업으로 형성, 미국의 기업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지역에서 독일이 수출수량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수출입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입의 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은 압도적으로 수출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미국 뿐만아니라 EC지역내에서도 다량의 잉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잉크출하액과 출하수량에서 계산한 평균단가 상당의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92년대비 93년의 신장률은 구성비가 5% 이상의 6개국을 보면,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가격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잉크 수출현황(국가별)

(단위 : 1000M/T, %)

구	분	1992			1993		
		수 출	수입	수출/수입	수 출	수입	수출/수입
독	일	80.8	16.2	5.0	84.9	12.9	6.6
영	국	5.8	15.7	0.4	12.7	10.9	1.2
이	태	11.0	7.4	1.5	11.5	6.9	1.7
프	랑	11.0	30.8	0.4	15.3	27.0	0.6
네	덜	16.3	13.3	1.2	18.9	11.8	1.6
벨	기	12.7	12.9	1.0	12.8	-	-
스	페	1.0	5.4	0.2	1.1	5.0	0.2
스	위	10.3	4.8	2.1	10.7	5.5	1.9
스	웨	4.6	7.3	0.6	5.4	7.7	0.7
오	스	4.8	9.4	0.5	6.5	10.1	0.6
노	르	1.2	2.3	0.5	1.4	2.5	0.6
합	계	159.5	125.5	1.3	181.2	100.3	1.8

활발한 국제화 움직임

세계적으로 주요한 미국과 일본, 유럽에 대해서는 업계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아시아지역 및 동유럽지역의 상황은 통계적 자료의 미비로 생략하기로 했다.

그러나 GNP로 살펴보면, NAFTA 6조7654억달러, EEA 7조6370억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12조858억달러를 자랑하는 APEC은 큰 경제성장력이 보이고 있으며, 동유럽과 함께 인쇄와 관련산업으로서는 대형 시장임은 부인 할 수 없다.

예전에 일본과 미국 등은 인쇄잉크의 신장률과 GNP의 신장률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며,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GDP 성장률이 94년은 11.5%, 95년은 9.0%로 전망되고 있어, 인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NPES와 중국의 PEIAC는 상호협력을 추진, 중국에서 미국의 인쇄관련 기계의 관세를 20% 삭감, 중국 정부도 미국의 인쇄기의 수입증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중 東洋잉크製造는 94년에 중국의 天津油墨, 유럽에서는 Total이 Taiyuan Printing Inks와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Sun Chem은 러시아에서 제2위를 달리고 있는 Moscow Printing Ink를 매수했고, Total은 러시아의 Torjok Polygraphic Ink의 25%의 자본을 취득하는 등 흡수·합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방산업회복으로 내수·수출 증가

94년 국내잉크시장은 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내수·수출 모두다 견조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부문에서는 옴셋잉크가 엔고특수로 동남아시아에서 꾸준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유형도 로칼에서 직수출로 전환되고 있어 수출구조면에서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매출액 신장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은 원자재상승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잉크산업이 용제를 사용하는 유성잉크시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기초용제가격의 폭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잉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100여개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8개 정도의 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도 주요기업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동양인쇄잉크가 6765톤, 대한페인트잉크 6136톤, 광명인쇄잉크 3541톤, 양지코츠 2460톤, 삼영잉크페인트 2298톤, 한국특수잉크 2240톤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잉크시장규모는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그라비아잉크, 옴셋잉크, 윤전잉크가 전체 잉크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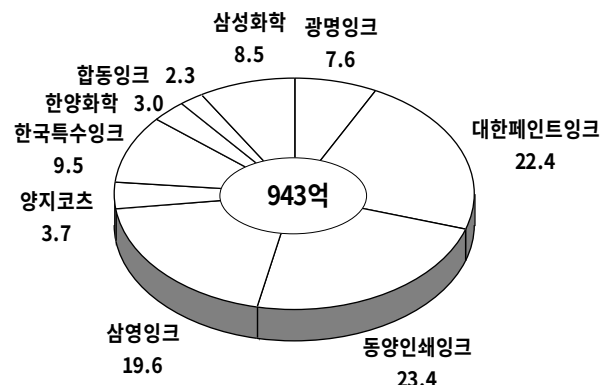
국내 인쇄잉크 생산실적(1994)

(단위 : %)

구 분	생산량	비 중
동양인쇄잉크	6,765	25.0
대한페인트잉크	6,136	22.7
광명잉크제조	3,541	13.1
양지코츠	2,460	9.1
삼영잉크 페인트 제조	2,289	8.5
한국 특수 잉크	2,240	9.3
한양화학	1,957	7.2
합동잉크	274	1.1
기 타	1,350	5.0
합 계	27,012	100.0

국내 인쇄잉크 시장점유율(1994)

(단위 : %)



전체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그라비아잉크시장은 여름특수와 후방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93년 대비 10% 이상의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94년 그라비아잉크의 생산량은 1만3000톤 정도로 추정되며 95년에도 10% 이상 성장한 1만4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그라비잉크의 수요확대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소비취향이 작고 휴대가 간편한 제품으로 바뀌고 있어 일회용품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회용커피용기, 일회용포장용기, 빙과류포장용기,카톤팩인쇄 등에 적용되는 그라비아잉크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라면포장지의 인쇄에 그라비아잉크가 전부 사용되고 있어 수요시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다.

현재 라면봉지용인쇄잉크의 가장 큰 수요기업은 농심계열사인 울촌화학으로 월간 잉크수요가 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그라비아 잉크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한잉크, 명성잉크, 삼성잉크, 삼성잉크페인트,한화중합화학 등으로 50여개사가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15%를 넘는 기업이 없어 다른 잉크 시장보다 시장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한잉크가 11-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삼성잉크 11%, 삼영잉크 페인트 9%, 명성잉크 8%, 기타 60-6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수요기업인 울촌화학에는 대한잉크와 명광화학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비아 인쇄잉크의 기술개발동향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수 있는 수용성그라비아잉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그라비아잉크는 무용제 형태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실용화단계에 접어 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단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셋잉크는 전체잉크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그라비아잉크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옵셋잉크의 생산량은 93년 대비 10% 장한 1만1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95년에도 15% 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쇄잉크 수출실적(1994)

(단위 : MT, 1000달러, %)

구	분	수 량	비 중	금 액	비 중
대한잉크	직수출	724	19.4	3,195	20.1
동양인쇄잉크	직수출	1,999	53.6	8,602	54.2
	로 칼	7	3.0	32	3.1
광명잉크제조	로 칼	229	97.0	1,001	96.9
삼영잉크	직수출	229	8.1	975	6.02
한국코츠	직수출	94	2.5	498	3.1
한국특수잉크	직수출	611	16.4	2,610	16.4
합 계	직수출	3,727	100.0	15,880	100.0
	로 칼	236	100.0	1,033	100.0

국내 인쇄잉크 생산추이(품목별)

(단위 : M/T,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생산량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생산량	증감률
옵	셋	8,800	9,200	4.5	10,300	12.0	11,330	10.0
운	전	5,000	5,300	6.0	7,500	41.5	10,125	35.0
활	판	500	300	▽40.0	100	▽66.7	100	-
골	판 지	2,400	2,600	8.3	2,700	3.8	2,835	5.0
그	라 비 아	12,000	12,500	4.2	12,700	1.6	13,589	7.0
금	속 용	1,200	1,300	8.3	1,400	7.7	1,498	7.0
기	타	2,400	2,400	0.0	2,500	4.2	2,700	8.0
합	계	32,300	33,600	4.0	37,200	10.7	42,377	14.0

국내 옅셧잉크의 성장은 엔고로인한 동남아시장으로의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4년 옅셧잉크의 수출액은 93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95년 옅셧잉크시장은 지자제선거로 인한 인쇄물 증가수출이로 인한 특수가 기대되고 수출도 엔화강세로 동남아시아지역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교과서의 전면개편에 따라 참고서 등 관련 책자의 전면재인쇄가 불가피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별 인쇄잉크 수출 현황

(단위 : M/T, 1000달러, %)

구 분	1993		1994			
	수 량	금 액	수 량	증감률	금 액	증감률
홍콩	1,056	4,093	1,434	35.8	5,881	43.7
대만	370	1,353	678	83.2	2,786	105.9
일본	481	1,732	718	49.3	2,766	59.7
태국	597	1,385	673	12.7	2,639	90.5
오스트레일리아	195	791	308	57.9	1,395	76.4
중국	40	146	75	87.5	347	137.7
싱가폴	33	153	82	148.5	346	126.1
필리핀	158	273	311	96.8	566	107.3
미국	158	745	47	▽70.3	199	▽73.3
파키스탄	138	479	96	▽30.4	375	▽21.7
나이지리아	42	181	11	▽73.8	57	418.2
도미니카공화국	4	16	12	200.0	53	341.7
방글라데시	86	340	90	4.7	243	170.0
뉴질랜드	3	12	15	400.0	63	320.0
피지	3	18	11	266.7	62	463.6
캐나다	-	-	10	-	12,600	-
인디아	2	6	5	150.0	18	200.0
파푸아뉴기니	-	-	3	-	17	-
자마이카	-	-	2	-	11	-
터키	-	-	2	-	10	-
인도네시아	79	545	73	▽7.6	804	47.5
기니	1	6	4	300.0	21	250.0
시리아	4	17	8	100.0	21	23.5
스리랑카	137	660	40	▽70.8	135	▽79.5
베트남	15	40	149	893.3	540	1,250.0
미얀마연방	2	8	3	50.0	15	87.5
EU(유럽연합)	2	5	1	-	1	▽80.0
그리스	2	5	-	-	-	-
브라질	1	5	-	-	-	-
이집트	31	94	-	-	-	-
이디오피아	-	-	4	-	13	-
니타라과	-	-	3	-	9	-
러시아	-	-	2	-	6	-
말레이시아	-	1	3	-	5	400.0
독일	-	-	-	-	-	-
요르단	2	8	-	-	-	-
기 타	5	13	7	40.0	18	38.5
합 계	3,647	13,130	4,879	33.8	19,549	48.9

국내 오프셋잉크의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동양인쇄잉크가 30%로 가장 많고 대한잉크 25%, 광명잉크 20%, 한국특수잉크 12%, 광명잉크 12%등으로 나타났다.

윤전잉크시장은 신문사들의 증면경쟁에 힘입어 93년 대비 35%의 성장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윤전잉크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저공해 크의 적용여부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윤전잉크는 모두 용제형잉크로 환경오염발생요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신문사들간의 증면경쟁에 이어 환경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환경기업의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신문인쇄에 저공해잉크 적용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가능한 저공해잉크는 용제대신 식물성 기름인 대두유를 사용한 대두유잉크로 국내에서도 개발을 완료했지만 적용이 안되고 있는 제품이다.

저공해잉크인 대두유잉크를 사용했을 경우 기존의 인쇄설비를 교체해야하는 추가비용부담이 있어 그동안 국내 인쇄기업들이 대두유잉크의 사용을 꺼려왔다.

골판지용 잉크시장은 후방산업인 골판지포장산업의 활황으로 15%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인쇄잉크 수입 현황

(단위 : M/T, 1000달러, %)

구	분	1993		1994			
		수 량	금 액	수 량	증감률	금 액	증감률
베	네	133	180	207	55.6	278	54.4
일	본	254	2,926	313	23.2	3,721	27.2
영	국	30	333	13	▽56.7	626	88.0
독	일	38	600	185	386.8	904	50.7
싱	가	7	203	7	0.0	220	8.4
네	덜	15	191	3	▽80.0	182	▽4.7
스	웨	1	16	1	0.0	21	31.3
미	국	116	1,596	141	21.6	1,695	6.2
중	국	-	-	90	-	107	-
대	만	4	12	19	375.0	54	350.0
벨	기	1	6	1	0.0	8	33.3
이	태	4	39	7	75.0	69	76.9
스	위	2	51	1	▽50.0	26	▽49.0
말	레	2	10	1	▽50.0	5	▽50.0
프	랑	3	89	20	▽33.4	41	▽53.9
홍	콩	-	3	2	-	51	1,600.0
E	U	90	1,258	241	167.8	1,829	45.4
기	타	3	50	4	33.3	65	30.0
합	계	713	7,563	1,238	73.6	9,902	30.9

그동안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골판지박스류의 사용감소에 따라 골판지인쇄잉크의 수요가 부진했다..

그러나 94년 부터 국내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환경문제의 대두로 발포수지 사용이 감소하고 골판지 사용이 증가해 골판지인쇄잉크의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판지용인쇄잉크는 동양인쇄잉크가 전체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한잉크, 삼영잉크, 한영화학, 남영잉크 등이 각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용잉크의 주요 수요기업은 제일산업, 정범산업, 대영판재, 한국특수포장 등 주로 포장지제조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잉크인 UV 잉크와 스크린인쇄잉크는 아직 시장점유율은 미미하지만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V잉크는 개발된지는 10년이 넘었으나 인쇄 비용부담이 커 그동안 시장진입이 용의하지 않았으나

리우회담이후 환경문제부각과 함께 빠르게 실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V잉크는 100% 고형분으로 용제가 불필요해 용제로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UV 잉크를 생산하는 기업은 미농상사, 삼성화학상사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80%로 정도가 유럽에서 수입된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5/15>